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문법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 비교



2008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민 성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 영문법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 비교

지도교수 조 윤 경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민 성

김민성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8월 27일



주심      문   학   박사   손달례 (인)

위원      문   학   박사   권영희 (인)

위원      교육학   박사   조윤경 (인)

##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과제              | 2  |
| 3. 연구의 제한점           | 3  |
| II. 이론적 배경           | 4  |
| 1. 문범의 정의            | 4  |
| 2. 문범교육의 필요성         | 5  |
| 3. 문범교육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 7  |
| III. 연구방법            | 10 |
| 1. 연구 참여자            | 10 |
| 2. 연구 도구             | 11 |
| 3. 자료 수집 절차 및 분석 방법  | 14 |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15 |
| 1. 문범학습의 필요성         | 15 |
| 가. 문범학습의 절대적 필요성     | 15 |
| 나. 문범학습이 배제된 의미중심교수법 | 17 |
| 다. 문범학습의 유용성         | 19 |
| 라. 학교문범수업의 비중 증가     | 21 |

|                                           |    |
|-------------------------------------------|----|
| 2. 문법학습에 대한 정의적 태도 .....                  | 23 |
| 가. 문법학습의 목적 .....                         | 23 |
| 나.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                      | 25 |
| 3. 문법학습 내용과 방법 .....                      | 27 |
| 가. 명시적·암시적 학습 .....                       | 27 |
| 나. 다른 활동과의 통합 .....                       | 29 |
| 다. 문법 연습 활동의 유형 .....                     | 31 |
| 4. 학습해야 할 문법 규칙의 유형 .....                 | 32 |
| 5. 현 문법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 35 |
| 가. 중등 영어문법 교육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 35 |
| 나. 학습자의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부족의 이유 및 해결방안<br>..... | 38 |
| <b>V. 결론 및 제언</b> .....                   | 42 |
| 1. 결론 .....                               | 42 |
| 2. 제언 .....                               | 43 |
| 참고문헌 .....                                | 45 |
| 부록 1 .....                                | 47 |

## 표 목 차

|                                       |    |
|---------------------------------------|----|
| <표 1> 학생 참여자의 특성 .....                | 10 |
| <표 2> 교사 참여자의 특성 .....                | 11 |
| <표 3> 설문지 구성 .....                    | 12 |
| <표 4> 문법학습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 16 |
| <표 5> 문법학습이 배제된 의미중심교수법에 대한 인식비교..... | 18 |
| <표 6> 문법학습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비교.....         | 20 |
| <표 7> 학교문법수업의 비중 증가에 대한 인식비교.....     | 22 |
| <표 8> 문법학습의 목적에 대한 인식비교.....          | 24 |
| <표 9> 문법학습에의 흥미에 대한 인식비교.....         | 25 |
| <표 10> 명시적·암시적 학습에 대한 인식비교.....       | 28 |
| <표 11> 다른 활동과의 통합에 대한 인식비교.....       | 29 |
| <표 12> 문법 연습활동의 유형에 대한 인식비교.....      | 31 |
| <표 13> 학습해야 할 문법 규칙의 유형에 대한 인식비교..... | 33 |
| <표 14> 문법교육의 문제점.....                 | 37 |
| <표 15>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부족의 이유.....         | 39 |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1> 의사소통능력 ..... | 6 |
|---------------------|---|



# Comparison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Regarding English Grammar Instruction

Kim, Min-su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English grammar instruction. The beliefs of students play an important role in motivation, selection of learning strategies, and overall learning processes. Alternatively, teacher perceptions also play a crucial role experimenting with new and different approache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explore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English grammar instruction before creating new English grammar curriculum.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36 closed questions and 6 open questions was administered to 104 students and 34 teachers. The goal of the survey was to determine perceptions of English grammar instructions.

Comparisons of the closed question responses from the two groups indicated that there were meaningfu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regarding the grammar instruction of English learning. The results of the analyses revealed the following:

In general, both students and teachers demonstrated positive responses for the usefulness of learning grammar. However, students were less active than teachers. Second, both groups shared the common perception that grammar achieves accuracy rather than fluency. Students agreed more strongly than teachers that the aim of studying grammar is to achieve a good score on exams. Third, the implicit explanation of grammar instruction was advocated far more strongly by teachers than by students, while the explicit explanation was preferred by both groups. Finally, both groups agreed that there is no need to learn all the rules of grammar.

Data comparisons of the two groups from the open questions indicated both students and teachers thought the instruction of English grammar is cramming-oriented and unpractical. Also they answered that students have negative perception of grammar. As a possible solution to these problems, students suggested learning grammar points necessary to communication and reducing the importance of exams, while teachers suggested that instruction should be focused on necessary grammar points that are used in a real communicative situ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suggestions were offered for effective grammar instruction. First, we need to establish the grammar instruction which corresponds to the goal of improving the competence of English communication, with consideration to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English grammar. Second, grammar instruction should help students understand comprehensive

knowledge in the language system and should be applicable to the context in which they learn. As a result, grammar instruction should be learner-centered, and grammar should be considered as a useful means that we can capitalize on in any communication situation.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8년 초 우리나라를 몰아친 화두는 단연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몰입교육’이었다. 이의 실행에 있어서는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섰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영어 공교육완성 프로젝트의 정책목표는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기본 생활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대학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이 도입되고 2012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생이 영어는 TEE방식으로 수업 받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또 다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외국어 학습의 주요 목표로 부각되면서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문헌은 언어교수에 대한 의사소통 접근법의 몇몇 주창자들의 강력한 반 문법 선언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chulz, 2001). 예를 들어, Doughty와 Williams(1998) 그리고 Lee와 Valdman(2000)은 의사소통을 하는 교실에서 어떻게 체계적인 언어 패턴들을 인식하고 사용하도록 가르칠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영어교육에 있어서 문법의 역할이 비록 절대적인 것은 아닐지 몰라도 교육환경과 조건에 따라 제대로 적용을 한다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에 의사소통을 언어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어떻게 문법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언어 형식에 대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은 문법 교수 및 학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사의 교수가 학습자의 요구, 기대와 조화를 이룰 때 학습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Schulz, 2001). 학생은 학습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학습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학습이 얼마만큼 효과성을 지니게 되느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교사들의 신념이 그들의 교수내용이나 교수방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들의 영문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문법교육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문지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을 고려한 영문법 수업 개선을 이루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연구 과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 1. 영문법 수업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과제 2. 영문법 수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논문의 질문지에 참가한 연구 참여자들은 무선 표집(random sampling)이 아니라 편의상의 표집(convenient sampling)에 의해 본 연구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설문지를 통한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대한 심층 연구가 힘들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로 면담조사를 통한 깊이 있는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문법의 정의

문법(grammar)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우선, 문법이란 모국어 화자들이 그들의 언어를 생성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규칙과 원리들로써 이러한 것들은 유아기에 거의 습득되며 모국어 화자들의 머릿속에 있다. 이것은 정신문법(mental grammar)이라 불리는데, 이 문법이 취하는 정확한 형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관찰될 수 있는 것은 화자가 모국어의 문장들로 사용하고 인식하는 말들일 뿐이다(김양순 공역, 2000).

그리고 문법학자들에 의해서 형식화되는 일반화의 집합과 일반화의 예외적인 사항을 지칭할 때 문법이란 용어는 사용된다. 문법학자들은 문법적인 문장들을 연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가능한 다른 일련의 단어들과 비교하며, 비문법적이라고 화자들이 생각하는 문장들과 문법적인 일련의 단어들을 구별하는 특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기술문법(descriptive grammar)으로 알려져 있다(김양순 공역, 2000).

또한, 언어에 대해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자의 영어 용법에 기초하는 규범문법(descriptive grammar)이 있다. 문법학자들이 말하고 쓰는 어떤 방식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어를 모르는 자국민이나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에 목적을 둔 학교문법은 규범문법이다. 학교문법이 규범적인 성격을 띤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저자 자신의 판단이나 관습에 따라,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말하고 써야 한다

는 식으로 모범적인 어법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다(이환목, 2002).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문법은 일관성 있는 의사소통(coherent communication)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의 집합이다. 인간의 언어는 정보를 부호화(code)하고 의사소통을 하도록 고안된 목적성 있는 도구이고, 다른 도구들과 같이 그 구조와 기능이 분리되지 않는다. 문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법은 문법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문법은 성공적인 의사소통(successful communication)에 관한 것이다(김은일, 박기성, 채영희(역), 2003).

박상옥(2004)에 의하면 문법은 간단히 말해서 언어형성 규칙이다. 그리고 문법지식은 말(구어)로서 또는 글(문어)로서 정확하게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므로 문법은 소위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본으로서 그것들과는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인 관계에 있다. 즉, 문법은 그 자체가 언어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단지 수단일 뿐이다.

이상과 같이 문법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요약해보면, 문법은 모국어 화자들이 그들이 언어를 생성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규칙과 원리들로, 일관성 있는 그리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 2. 문법교육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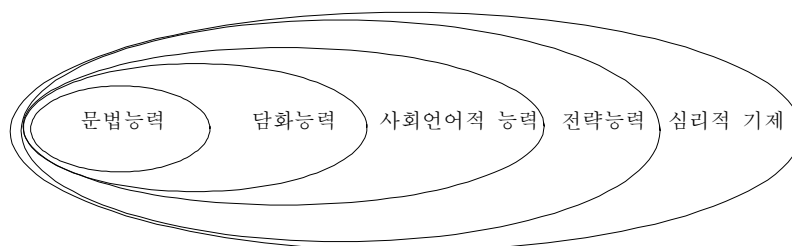
신길호(2004)에 따르면 외국어교육의 목적은 학습자가 목표어의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갖추고 목표어권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Hymes(1972)였는데, 그는 Chomsky의 언어능력(competence)은 화자의 문법적 지식에 국한된 개념으로 언어의 사회적, 기능적 규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실제 사회에서 화자의 적절한 언어사용을 위해서는 문법적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언어사용의 사회적 지식까지도 요구된다고 하였다.

Canale과 Swain(1980)은 의사소통능력을 문법능력, 담화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책략적 능력으로 나누어 정의내리고 있다. 문법능력(grammatical competence)은 어휘지식, 형태, 구조, 의미, 음운규칙에 관한 지식으로, 여기에서 문법능력은 의사소통능력의 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길호(2004)는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은 기본적인 문법능력으로부터 심리적 기제까지 다음 <그림 1>과 같이 표시하였다. 이 능력들은 상호 영향을 주어 바깥 원의 능력이 그보다 안쪽 원에 해당되는 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림 1> 의사소통능력



결론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이란 문법과 담화의 이해와 사용에 관한 능력, 사회 언어적 능력, 부족한 언어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능력, 억제심리

없이 목표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모두 포함된 전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즉, 문법적 능력은 언어 전반에 걸친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다른 언어 사용능력과 더불어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능력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영어교육에서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의 문법 교육의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문법능력이 의사소통의 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문법교육의 개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 3. 문법 교육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영문법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인식비교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Schulz(2001)는 미국과 콜롬비아의 교사들과 학생들의 문법교수와 오류수정의 역할에 관한 인식 연구에서 824명의 미국의 FL(Foreign Language) 학생들과 92명의 교사들 그리고 607명의 콜롬비아의 FL 학생들과 122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과 콜롬비아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외국어 숙달에 있어서 문법 공부가 궁극적인 외국어 숙달에 필수적이라고 동의를 하였고, 문법공부가 외국어 학습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집단에 있는 교사들의 대다수가 문법 교수가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를 했지만 학생들보다는 덜 강하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겠다. 또한 이 연구는 미국과 콜롬비아 간의 교육 문화적 차이도 보여주고 있다. 콜롬비아 학생들과 교사들은 미국의 학생들과 교사들보다 훨씬 더 ‘문법규칙을 공부하고 연습한다면 더 빨리 외국어가 향상된

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콜롬비아 교사들과 학생들은 전통적인 언어교수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 즉, 명시적인 문법 교수와 오류수정의 효능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여주었다.

이윤주(2007)는 서울시내 여고 중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영문법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및 선호하는 교수법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실제 많은 시간 학습하는 영역은 영문법 영역이었고 영문법 학습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은 낮은 반면에 잘 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대상 중 66.7%의 학생들이 영문법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영어실력향상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수법으로는 교사중심수업이 가장 문법 학습에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영문법 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장철기(2006)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79명을 대상으로 영문법에 대한 인식,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도, 문법 학습 방법, 교과서 문법학습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에서 근무하는 53명의 영어교사들에게 영어 수업 시 중점을 두는 분야, 문법교육의 필요성, 영문법 교수 시 수업방식, 교과서 문법 사항에 관한 만족도 등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과 교사 모두 말하기나 듣기, 쓰기 보다는 읽기와 문법에 관심이 높았으며, 대부분의 영어교사들이 문법지도의 방법으로 강의식 문법 설명과 유인물을 이용한 반복 숙달 식 문법교육을 선호하지만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문법 교육방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현행 영문법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일관성 없는 영어 교육 정책이나 듣기와 말하기 위주로 인한 문법 비중의 감소 등을 들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나 학생들은 교과서의 문법 설명이 부족하거나 생략이 많아서 이해가 힘들다고 답하였다.

이상과 같이 문법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두 집단 모두 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문법 교육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영어교육에 있어서 문법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문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이와 반대로 경시하는 지도 방향은 학습자의 장기적인 영어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문법 교육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인식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영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Schulz를 제외한 언급된 나머지 연구들은 학습자들과 교사들의 영문법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그러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단지 두 집단의 영문법 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였다. 교사의 교수가 학습자의 요구, 기대와 조화를 이룰 때 학습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집단 간에 문법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의 유무를 조사해 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35명의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113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영문법수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중 폐쇄형 질문지(closed questionnaire)의 질문 항목에 모두 응답하지 않은 교사 1명과 9명의 학생들의 질문지는 분석 조사에서 제외시켰다. 그리하여 모두 34명의 교사들과 104명의 학생들의 응답을 토대로 두 집단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료수집당시 부산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학교 급별로 나누었을 때 중학생은 32명이고 고등학생은 72명이었다. 학교 급별 및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학생 참여자의 특성

| 학교 급별 | 합계  | 성별            |               |
|-------|-----|---------------|---------------|
|       |     | 남성            | 여성            |
| 중학교   | 32  | 18            | 14            |
| 고등학교  | 72  | 35            | 37            |
| 합 계   | 104 | 53<br>(51.0%) | 51<br>(49.0%) |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 또한 자료수집당시 부산의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며, 학교 급별, 성별, 경력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교사 참여자의 특성

| 학교급별 | 총수 | 성별            |               | 교사경력          |             |               |               |             |
|------|----|---------------|---------------|---------------|-------------|---------------|---------------|-------------|
|      |    | 남성            | 여성            | 1~5년          | 6~9년        | 10~19년        | 20~29년        | 30년이상       |
| 중학교  | 16 | 3             | 13            | 7             | 2           | 2             | 5             | 0           |
| 고등학교 | 18 | 8             | 10            | 3             | 1           | 8             | 5             | 1           |
| 합 계  | 34 | 11<br>(32.4%) | 23<br>(67.6%) | 10<br>(29.4%) | 3<br>(8.8%) | 10<br>(29.4%) | 10<br>(29.4%) | 1<br>(2.9%) |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자료는 설문지에 의해 수집되어졌다(부록 1 참조).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설문지는 Cho(2008)가 사용한 설문지를 차용하였다. 설문지는 학생용과 교사용 설문지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교사용 설문지와 학생용 설문지의 문항수와 설문 문항의 구성은 동일하나 표현은 교사와 학생에게 맞게 조금 다르게 제시되었다.

설문지는 총 2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첫 번째 부분은 영문법 교수·학습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도록 폐쇄형 질문지(closed questionnaire)방식으로 되어있고, 5점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5등급으로 나누어져 ‘1은 아주 동의하지 않는다, 2는 동의하지 않는다, 3은 잘 모르겠다, 4는 동의한다, 5는 아주 동의한다’를 의미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검사하기 위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측정도구로 선택하였으며 그 검사 결과 신뢰도 계수는 .6463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부분은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지(open-ended questionnaire)방식을 채택하였다. 폐쇄형 질문지만을 사용할 경우 학생과 교사의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지 방식을 함께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폐쇄형 질문지에서 제시하는 설문 항목들과 개방형 질문지에서 제시하는 설문 항목들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 표 3 > 설문지 구성

| 유형                    | 범 주                              | 내 용                   | 문항번호               | 문항수 |
|-----------------------|----------------------------------|-----------------------|--------------------|-----|
| 폐쇄형<br>(Likert<br>방식) | 문법학습의<br>필요성                     | 문법학습의 절대적 필요성         | 1, 2, 3, 4         | 4   |
|                       |                                  | 문법학습이 배제된 의미중심<br>교수법 | 5, 6, 7, 8, 9      | 5   |
|                       |                                  | 문법학습의 유용성             | 10, 11, 12, 13     | 4   |
|                       |                                  | 학교문법수업의 비중 증가         | 14, 15             | 2   |
|                       | 문법학습에 대한<br>정의적 태도               | 문법학습의 목적              | 16, 17, 18, 19     | 4   |
|                       |                                  |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 33, 34, 35, 36     | 4   |
|                       | 문법학습 내용과<br>방법                   | 명시적 • 암시적 학습          | 20, 21, 22         | 3   |
|                       |                                  | 다른 활동과의 통합            | 23, 24, 25         | 3   |
|                       |                                  | 문법 연습 활동 유형           | 26, 27             | 2   |
|                       | 학습해야 할 문법규칙의 유형                  |                       | 28, 29, 30, 31, 32 | 5   |
| 소합계                   |                                  |                       | 36문항               |     |
| 개방형                   | 중등 영어문법 교육에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br>안    |                       | 37, 38, 39, 40     | 4   |
|                       | 학습자의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부족의 이유 및<br>해결방안 |                       | 41, 42             | 2   |
|                       | 소합계                              |                       |                    | 6문항 |
| 총합계                   |                                  |                       | 42문항               |     |

폐쇄형 질문지는 모두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하는 설

문 항목은 문법학습의 필요성, 문법학습에 대한 정의적 태도, 문법학습 내용과 방법, 문법규칙의 유형의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우선 문법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학습의 절대적 필요성을 묻는 것과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문법규칙의 습득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문법학습이 배제된 의미중심교수법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향상에 적어도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문법학습의 유용성을 묻는 것과, 그리고 학교문법수업의 비중에 관련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법학습에 대한 정의적 태도를 묻는 문항들은 문법학습의 목적과 흥미로 나누어져 있다. 문법학습의 이유가 영어의 유창성을 위해서인지, 영어의 정확성을 위해서인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것인지를 묻고 있다. 그리고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에 관한 것으로는 영어학습의 다른 영역(읽기, 듣기, 회화 등)에 비해 문법을 배우는 것을 재미있어 하는지, 쉽다고 생각하는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문법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법학습 내용과 방법에 대한 문항들에서는 문법용어 사용의 유용성, 문법의 명시적·암시적 학습, 의사소통활동과의 통합 또는 분리학습의 유용성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문법규칙의 유형에 관한 부분으로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워야 하는지, 간단한 규칙만 배우면 되는 것인지, 복잡한 규칙만 배우면 되는 것인지, 모국어와 다른 규칙만을 배우면 되는 것인지, 의사소통에 필요하고 자주 쓰이는 규칙만을 배우면 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형 질문지는 모두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중등 영어문법 교육에서의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들과, 학생들이 영어문법에 흥미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영어 문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으로 제시되어있다.

### 3. 자료 수집 절차 및 분석 방법

설문 조사 기간은 2007년 12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편의상의 표집(convenient sampling)을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 폐쇄형 질문지에서는 회수된 설문지의 응답들을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빈도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질문지의 5점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에 있는 1의 '아주 동의하지 않는다'와 2의 '동의하지 않는다'를 합쳐서 '동의하지 않는다'로, 4의 '동의한다'와 5의 '아주 동의한다'를 '동의한다'로 묶었다. 그리고 각 학생집단과 교사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범주에 대해 빈도분석 및 카이제곱 분석(chi-square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개방형 질문지에서 얻은 교사들과 학생들의 응답들은 공통적인 것끼리 묶어 분류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 및 논의에서는 폐쇄형 설문지의 큰 범주인 문법학습의 필요성, 문법학습에 대한 정의적 태도, 문법학습의 내용과 방법, 문법 규칙의 유형과 그리고 개방형 질문지의 현 문법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라는 범주로 나누어서 논의하겠다.

### 1. 문법학습의 필요성

문법학습의 필요성에서는 문법학습의 절대적 필요성, 문법학습이 배제된 의미중심교수법, 문법학습의 유용성, 학교문법수업의 비중 증가로 나누어진다.

#### 가. 문법학습의 절대적 필요성

다음 <표 4>는 문법학습이 영어 학습의 네 가지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문법학습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비교

|     | 학생            |               |               | 교사            |              |               |
|-----|---------------|---------------|---------------|---------------|--------------|---------------|
|     | 동의하지<br>않는다   | 잘<br>모르겠다     | 동의한다          | 동의하지<br>않는다   | 잘<br>모르겠다    | 동의한다          |
| 항목1 | 32<br>(30.8%) | 39<br>(37.5%) | 33<br>(31.7%) | 14<br>(41.2%) | 2<br>(5.9%)  | 18<br>(52.9%) |
| 항목2 | 25<br>(24.0%) | 23<br>(22.1%) | 56<br>(53.8%) | 11<br>(32.4%) | 4<br>(11.8%) | 19<br>(55.9%) |
| 항목3 | 20<br>(19.2%) | 22<br>(21.2%) | 62<br>(59.6%) | 4<br>(11.8%)  | 1<br>(2.9%)  | 29<br>(85.3%) |
| 항목4 | 9<br>(8.7%)   | 12<br>(11.5%) | 83<br>(79.8%) | 3<br>(8.8%)   | 1<br>(2.9%)  | 30<br>(88.2%) |

항목 1: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영어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

항목 2: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영어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

항목 3: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영어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

항목 4: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영어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

영어 학습의 네 가지 영역 중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각각 55.9%, 85.3%, 88.2%의 교사들과, 각각 53.8%, 59.6%, 79.8%의 학생들이 동의하며 반드시 문법 학습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항목 2, 3, 4).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문법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즉,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 영어 학습의 향상을 위해서는 문법 학습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항목 1의 듣기의 경우에는 교사는 52.9%, 학생은 31.7%가 ‘동의한다’를 선택해 의견에 있어서 다소 불일치를 보여 주었다. 정리해 보면, 교사들은 4가지 영역에서 문법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학생들은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는 동의하였지만 듣기에 있어서는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문법학습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 학생과 교사간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항

목1과 항목 3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항목1:  $x^2=12.573$ ,  $df=2$ ,  $p=.002$ ; 항목2:  $x^2=2.102$ ,  $df=2$ ,  $p=.350$ ; 항목3:  $x^2=8.483$ ,  $df=2$ ,  $p=.014$ ; 항목 4:  $x^2=2.234$ ,  $df=2$ ,  $p=.327$ ).

항목 1에서는 교사들의 52.9%와 학생들의 31.7%가 동의한 반면, 41.2%의 교사들과 30.8%의 학생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5.9%의 교사들과 37.5%의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하였다. 교사들이 학생들에 비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영어문법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들에 비해 듣기 능력향상에 있어서 영문법의 필요성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꼭 문법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단어의 의미만으로도 대화에서의 전반적인 문맥의 이해가 가능하기에 듣기 능력 향상에 있어서 문법의 중요성은 다소 낮은 의견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항목 3에서는 교사들과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를 하였으나, 학생의 21.2%와 교사의 2.9%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선택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사들에 비해 학생들이 문법공부의 절대적 필요성과 읽기 능력 향상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읽기를 할 때 문법적인 구조를 잘 모르더라도 몇 단어의 의미만으로도 대략적인 의미를 유추해서 이해할 수도 있으며, 반면에 문법을 몰라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보다 그 속에 나오는 어휘의 뜻을 몰라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문법공부의 필요성과 연관이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나. 문법학습이 배제된 의미중심교수법

다음 <표 5>는 문법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의미중심교수법을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문법규칙 습득과 영어의 네 가지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향상을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한 두 집단 간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표 5> 문법 학습이 배제된 의미중심교수법에 대한 인식비교**

|     | 학생            |               |               | 교사            |              |               |
|-----|---------------|---------------|---------------|---------------|--------------|---------------|
|     | 동의하지 않는다      | 잘 모르겠다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잘 모르겠다       | 동의한다          |
| 항목5 | 32<br>(30.8%) | 32<br>(30.8%) | 40<br>(38.5%) | 10<br>(29.4%) | 6<br>(17.6%) | 18<br>(52.9%) |
| 항목6 | 7<br>(6.7%)   | 13<br>(12.5%) | 84<br>(80.8%) | 4<br>(11.8%)  | 1<br>(2.9%)  | 29<br>(85.3%) |
| 항목7 | 16<br>(15.4%) | 24<br>(23.1%) | 64<br>(61.5%) | 5<br>(14.7%)  | 3<br>(8.8%)  | 26<br>(76.5%) |
| 항목8 | 24<br>(23.1%) | 32<br>(30.8%) | 48<br>(46.2%) | 10<br>(29.4%) | 6<br>(17.6%) | 18<br>(52.9%) |
| 항목9 | 51<br>(49.0%) | 30<br>(28.8%) | 23<br>(22.1%) | 23<br>(67.6%) | 3<br>(8.8%)  | 8<br>(23.5%)  |

항목 5: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문법규칙은 습득될 수 있다.

항목 6: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듣기 능력은 향상된다.

항목 7: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말하기 능력은 향상된다.

항목 8: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읽기 능력은 향상된다.

항목 9: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쓰기 능력은 향상된다.

항목 5에서 교사는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문법 규칙은 습득될 수 있다는 의견이 52.9%, 반면에 학생들은 세 가지 의견이 골고루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항목 6, 7, 8에서는 두 집단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여준다.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

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듣기와 말하기, 읽기 능력은 향상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항목 9를 보면,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쓰기 능력은 향상된다’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에 더 많은 비율을 보이는데, 특히 교사들(67.6%)이 학생들(49.9%)보다도 더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법을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학습이 배제된 의미중심교수법에 대한 학생과 교사간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항목 9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항목5:  $\chi^2=2.896$ ,  $df=2$ ,  $p=.235$ ; 항목6:  $\chi^2=3.186$ ,  $df=2$ ,  $p=.203$ ; 항목7:  $\chi^2=3.544$ ,  $df=2$ ,  $p=.170$ ; 항목8:  $\chi^2=2.266$ ,  $df=2$ ,  $p=.322$ ; 항목9:  $\chi^2=5.973$ ,  $df=2$ ,  $p=.050$ ).

항목 9에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보여준 학생은 28.8%로, 8.8%인 교사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실제적으로 EFL 상황에서 진정성있는 실제 자료들(authentic materials)을 통해 쓰기 교육을 하기가 힘들어 우리 수업상황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험해 보지 못함으로 인해 학생들이 교사들보다 ‘모르겠다’는 대답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된다.

## 다. 문법학습의 유용성

다음 <표 6>은 문법학습이 영어능력향상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표 6> 문법학습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비교

|      | 학생            |               |               | 교사           |             |                |
|------|---------------|---------------|---------------|--------------|-------------|----------------|
|      | 동의하지<br>않는다   | 잘<br>모르겠다     | 동의한다          | 동의하지<br>않는다  | 잘<br>모르겠다   | 동의한다           |
| 항목10 | 12<br>(11.5%) | 23<br>(22.1%) | 69<br>(66.3%) | 0<br>(0%)    | 0<br>(0%)   | 34<br>(100.0%) |
| 항목11 | 12<br>(11.5%) | 24<br>(23.1%) | 68<br>(65.4%) | 0<br>(0%)    | 0<br>(0%)   | 34<br>(100.0%) |
| 항목12 | 14<br>(13.5%) | 20<br>(19.2%) | 70<br>(67.3%) | 2<br>(5.9%)  | 1<br>(2.9%) | 31<br>(91.2%)  |
| 항목13 | 6<br>(5.8%)   | 13<br>(12.5%) | 85<br>(81.7%) | 4<br>(11.8%) | 0<br>(0%)   | 30<br>(88.2%)  |

항목 10: 영어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듣기 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움이 된다.

항목 11: 영어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말하기 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움이 된다.

항목 12: 영어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읽기 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움이 된다.

항목 13: 영어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쓰기 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움이 된다.

두 집단 모두 대부분이 영어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움이 된다는 데에 동의를 하였다. 교사의 경우에는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 있어서는 문법학습의 유용성에 100%, 읽기와 쓰기에서도 각각 91.2%, 88.2%가 동의를 하였고, 학생들은 듣기(66.3%), 말하기(67.3%), 읽기(67.3%), 쓰기(81.7%)에서 문법학습의 유용성에 동의하였다. 특히 교사들은 학생들보다 더욱 강력하게 동의한 점을 눈여겨볼 수 있는데, 이는 영어 학습에서의 문법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질문지에 응답한 모든 교사들이 영어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의사소통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법의 유용성을 언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네 항목 중 교사들은 듣기, 말하기, 읽기 능력 향상에 있어서는 문법학습의 유용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쓰기에서는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는 쓰기 항목은 다른 세 항목에 비해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법학습의 유용성에 대해 학생과 교사간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항목 10, 11, 12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항목10:  $\chi^2=15.330$ ,  $df=2$ ,  $p=.000$ ; 항목11:  $\chi^2=15.923$ ,  $df=2$ ,  $p=.000$ ; 항목12:  $\chi^2=7.732$ ,  $df=2$ ,  $p=.021$ ; 항목13:  $\chi^2=5.651$ ,  $df=2$ ,  $p=.059$ ).

항목 10, 11에서 교사들은 100% 동의하였고, 12에서도 91.2%라는 높은 빈도를 보이는 반면, 학생들은 같은 세 항목에서 60%대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들보다는 문법의 유용성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라. 학교문법수업의 비중 증가

현재 학교수업에서 문법수업의 비중에 대해 묻고 있는 항목과 영어교과에서 문법 수업의 비중이 낮아짐으로써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능력이 저하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항목에 대한 교사와 학생 집단 간의 인식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학교문법수업의 비중 증가에 대한 인식비교

|      | 학생            |               |               | 교사            |              |               |
|------|---------------|---------------|---------------|---------------|--------------|---------------|
|      | 동의하지 않는다      | 잘 모르겠다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잘 모르겠다       | 동의한다          |
| 항목14 | 34<br>(32.7%) | 36<br>(34.6%) | 34<br>(32.7%) | 21<br>(61.8%) | 7<br>(20.6%) | 6<br>(17.6%)  |
| 항목15 | 38<br>(36.5%) | 42<br>(40.4%) | 24<br>(23.1%) | 10<br>(29.4%) | 9<br>(26.5%) | 15<br>(44.1%) |

항목 14: 현재와 비교하여 학교수업에서 문법 교육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항목 15: 영어교과에서 문법 교육의 비중이 낮아짐으로써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능력이 저하되었다.

항목 14에 대해서 61.8%의 교사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여, 교사의 대부분은 학교수업에서 문법교육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다. 반면에 학생의 32.7%는 ‘동의하지 않는다’, 34.6%는 ‘잘 모르겠다’, 32.7%는 ‘동의한다’를 선택하여, 학생들 내에서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카이제곱 검정실시 결과, 이 항목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항목14:  $\chi^2=9.053$ ,  $df=2$ ,  $p=.011$ ). 교사들의 61.8%, 학생들의 32.7%가 이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두 그룹 간에 차이를 찾아 볼 수 있다. 교사들이 학교수업에서 문법교육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데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교사들은 문법교육의 비중이 현재의 학교 영어 수업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항목 15에 대해서는 44.1%의 교사들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학생들은 단지 23.1%만이 동의하였다. 교사들에 비해 학생들은 문법교육의 비중이 낮아짐으로써 그들의 전반적인 영어능력이 저하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실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항목15:  $\chi^2=5.730$ ,  $df=2$ ,  $p=.057$ ). 두 집단에 있어서 세 가지 의견이 골고루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단지 문법의 비중이 낮아져서 자

신들의 전반적인 영어능력이 저하되었다기보다, 저하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다른 교육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항목 14에서 61.8%의 교사들은 현재와 비교하여 학교수업에서 문법 교육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항목15에서 44.1%의 교사들은 영어교과에서 문법 교육의 비중이 낮아짐으로써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즉, 문법의 비중이 낮아짐으로써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법교육의 비중이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문법교육의 증가가 아니라 의사소통 접근법에 근거하여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다른 여타 수업내용, 방법 등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 2. 문법학습에 대한 정의적 태도

문법학습에 대한 정의적 태도에서는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과 그에 대한 흥미부분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의 인식을 분석하겠다.

### 가. 문법학습의 목적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을 크게 유창성, 정확성, 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기의 세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그에 대한 교사와 학생 집단 간의 인식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문법학습의 목적에 대한 인식비교

|      | 학생            |               |               | 교사            |              |               |
|------|---------------|---------------|---------------|---------------|--------------|---------------|
|      | 동의하지<br>않는다   | 잘<br>모르겠다     | 동의한다          | 동의하지<br>않는다   | 잘<br>모르겠다    | 동의한다          |
| 항목16 | 20<br>(19.2%) | 15<br>(14.4%) | 69<br>(66.3%) | 4<br>(11.8%)  | 1<br>(2.9%)  | 29<br>(85.3%) |
| 항목17 | 46<br>(44.2%) | 26<br>(25.0%) | 32<br>(30.8%) | 16<br>(47.1%) | 3<br>(8.8%)  | 15<br>(44.1%) |
| 항목18 | 14<br>(13.5%) | 17<br>(16.3%) | 73<br>(70.2%) | 14<br>(41.2%) | 4<br>(11.8%) | 16<br>(47.1%) |
| 항목19 | 10<br>(9.6%)  | 14<br>(13.5%) | 80<br>(76.9%) | 11<br>(32.4%) | 7<br>(20.6%) | 16<br>(47.1%) |

항목 16: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어를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해서이다.

항목 17: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서이다.

항목 18: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이다.

항목 19: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이다.

항목 16에서 학생의 66.3%와 교사의 85.3%가 영어를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해 문법을 공부한다고 하였고, 이에 반해 항목 17에서 30.8%의 학생들과 44.1%의 교사들만이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항목 16, 17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항목16:  $\chi^2=5.030$ ,  $df=2$ ,  $p=.081$ ; 항목17:  $\chi^2=4.577$ ,  $df=2$ ,  $p=.101$ ). 두 집단 모두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의사소통을 위해 유창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항목 18, 19에서는 문법학습의 목적에 대해 교사와 학생의 인식의 차이가 보여 진다.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이다’라는 두 항목에 대해 학생의 70.2%와 76.9%가, 교사의 47.1%와 47.1%가 각각 동의하였다. 카이제곱 검

정실시 결과, 이 두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항목18:  $x^2=12.180$ ,  $df=2$ ,  $p=.002$ ; 항목19:  $x^2=12.846$ ,  $df=2$ ,  $p=.002$ ).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시험성적을 위해 문법을 공부한다는 의견을 보여주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문법교육을 의사소통중심의 교육에 있어서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나.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영어교육 방법은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감각과 경험에 맞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표 9>는 문법학습에의 흥미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표 9> 문법학습에의 흥미에 대한 인식비교

|      | 학생            |               |               | 교사            |              |               |
|------|---------------|---------------|---------------|---------------|--------------|---------------|
|      | 동의하지 않는다      | 잘 모르겠다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잘 모르겠다       | 동의한다          |
| 항목33 | 73<br>(70.2%) | 26<br>(25.0%) | 5<br>(4.8%)   | 30<br>(88.2%) | 4<br>(11.8%) | 0<br>(0%)     |
| 항목34 | 72<br>(69.2%) | 23<br>(22.1%) | 9<br>(8.7%)   | 33<br>(97.1%) | 1<br>(2.9%)  | 0<br>(0%)     |
| 항목35 | 73<br>(70.2%) | 25<br>(24.0%) | 6<br>(5.8%)   | 29<br>(85.3%) | 5<br>(14.7%) | 0<br>(0%)     |
| 항목36 | 21<br>(20.2%) | 24<br>(23.1%) | 59<br>(56.7%) | 9<br>(26.5%)  | 4<br>(11.8%) | 21<br>(61.8%) |

항목 33: 학생들은 영어학습의 다른 영역(읽기, 듣기, 회화 등)에 비해 문법 배우는 것을 재미있어 한다.

항목 34: 학생들은 영어학습의 다른 영역(읽기, 듣기, 회화 등)에 비해 문법이 쉽

다고 생각한다.

항목 35: 학생들은 영어학습의 다른 영역(읽기, 듣기, 회화 등)에 비해 문법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항목 36: 학생들은 문법에 대해 잘 알고 싶어 한다.

두 집단 모두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학습의 다른 영역에 비해 문법 배우는 것을 재미있어 하지 않고(항목33; 학생 70.2%, 교사 88.2%), 쉽다고 생각하지 않으며(항목34; 학생 69.2%, 교사 97.1%),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항목35; 학생 70.2%, 교사 85.3%) 생각했다. 특히, 학생들보다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의 영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항목 34에서는 학생들보다 교사들이 더욱 더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목 36에서 두 집단 모두(학생 56.7%, 교사 61.8%) 학생들이 문법에 대해 잘 알고 싶어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항목 34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항목 33:  $\chi^2=4.817$ ,  $df=2$ ,  $p=.090$ ; 항목34:  $\chi^2=10.967$ ,  $df=2$ ,  $p=.004$ ; 항목 35:  $\chi^2=3.779$ ,  $df=2$ ,  $p=.151$ ; 항목36:  $\chi^2=2.193$ ,  $df=2$ ,  $p=.334$ ). 항목 34에서 보면, 교사의 97.1%가 학생들은 영어학습의 다른 영역에 비해 문법이 쉽다고 생각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69.2%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학생들보다도 교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문법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학생들이 문법을 어려워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의 문법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으며,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는 학습 방법을 모색한다면 문법학습의 효과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문법도 쉬운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김인옥(1998)은 태도는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태도는 교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개

선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영문법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로 흥미와 자심감이 낮음을 들 수 있기에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 3. 문법학습 내용과 방법

문법학습의 내용과 방법에서는 명시적·암시적 학습, 다른 활동과의 통합, 문법 연습활동의 유형으로 다시 작게 나누어서 논의하겠다.

#### 가. 명시적·암시적 학습

Brown(2000)에 따르면, 명시적 접근법이란 교사가 언어규칙이나 예외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암시적 접근법은 문법규칙에 대한 교사의 명확한 설명 없이 예문을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표 10>은 명시적·암시적 학습에 관한 학생과 교사 집단 간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표 10> 명시적·암시적 학습에 대한 인식비교

|      | 학생            |               |               | 교사            |              |               |
|------|---------------|---------------|---------------|---------------|--------------|---------------|
|      | 동의하지<br>않는다   | 잘<br>모르겠다     | 동의한다          | 동의하지<br>않는다   | 잘<br>모르겠다    | 동의한다          |
| 항목20 | 25<br>(24.0%) | 24<br>(23.1%) | 55<br>(52.9%) | 17<br>(50.0%) | 8<br>(23.5%) | 9<br>(26.5%)  |
| 항목21 | 43<br>(41.3%) | 30<br>(28.8%) | 31<br>(29.8%) | 12<br>(35.3%) | 3<br>(8.8%)  | 19<br>(55.9%) |
| 항목22 | 7<br>(6.7%)   | 6<br>(5.8%)   | 91<br>(87.5%) | 4<br>(11.8%)  | 2<br>(5.9%)  | 28<br>(82.4%) |

항목 20: 문법용어를 사용하여 배우는 것이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항목 21: 새로운 문법규칙이 나올 때, 문법규칙에 대한 선생님의 명확한 설명 없이 예문을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항목 22: 새로운 문법규칙이 나올 때 선생님은 문법 규칙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항목 20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상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52.9%의 학생들은 문법용어를 사용하여 배우는 것이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24.0%는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교사들은 26.5%가 이 항목에 동의하였고 50.0%는 동의하지 않아, 두 그룹간의 차이를 보여 주었다.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이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항목 20:  $\chi^2=9.532$ ,  $df=2$ ,  $p=.009$ ). 즉 학생들은 문법용어를 사용하여 배우는 것이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교사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21을 보면, 교사의 55.9%가 새로운 문법규칙이 나올 때 문법규칙에 대한 선생님의 명확한 설명 없이 예문을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나, 학생들은 29.8%만이 이에 동의하여 두 집단 간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으로 학생들보다 교사들이 암시적 학습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이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항목21:  $\chi^2=9.339$ ,  $df=2$ ,  $p=.009$ ). 이는 학

생들이 암시적인 문법 설명보다는 명시적인 문법 설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항목 22에서는 87.5%의 학생과 82.4%의 교사가 새로운 문법규칙이 나올 때 선생님이 명확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여 두 집단 간의 인식에 있어서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이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항목22:  $\chi^2=.894$ ,  $df=2$ ,  $p=.640$ ). 이는 두 집단 모두 문법의 명시적 학습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나. 다른 활동과의 통합

Celce-Murcia(1991)는 문법 및 언어구조는 의사소통능력의 증진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한다. 언어표현 및 재료는 의미 있는 실제 상황 속에서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즉 해당외국어의 구조 및 규칙은 의미 있는 의사소통 활동을 통하여 학습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음 <표 11>은 문법의 다른 활동과의 통합에 관한 두 집단의 인식에 관한 것이다.

<표 11> 다른 활동과의 통합에 대한 인식비교

|      | 학생            |               |               | 교사            |              |               |
|------|---------------|---------------|---------------|---------------|--------------|---------------|
|      | 동의하지 않는다      | 잘 모르겠다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잘 모르겠다       | 동의한다          |
| 항목23 | 41<br>(39.4%) | 31<br>(29.8%) | 32<br>(30.8%) | 31<br>(91.2%) | 1<br>(2.9%)  | 2<br>(5.9%)   |
| 항목24 | 10<br>(9.6%)  | 26<br>(25.0%) | 68<br>(65.4%) | 2<br>(5.9%)   | 0<br>(0%)    | 32<br>(94.1%) |
| 항목25 | 20<br>(19.2%) | 38<br>(36.5%) | 46<br>(44.2%) | 7<br>(20.6%)  | 5<br>(14.7%) | 22<br>(64.7%) |

항목 23: 문법은 듣거나 읽기 등의 다른 활동과 분리하여 배우는 것이 유용하다.

항목 24: 문법은 듣거나 읽기 등의 다른 활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문법을

배우는 것이 유용하다.

항목 25: 문법을 듣기나 읽기 등의 다른 활동과 분리하여 배우면, 나중에 그 문법을 의사소통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항목 23에 대해 교사의 91.2%는 문법은 듣기나 읽기 등의 다른 활동과 분리하여 배우는 것이 유용하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39.4%만 동의하지 않았고 그들의 30.8%는 분리하여 배우는 것이 유용하다고 하였다. 즉 교사가 훨씬 더 이 항목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과 교사 간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이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항목23:  $\chi^2=27.571$ ,  $df=2$ ,  $p=.000$ ). 이는 교사들이 문법은 다른 활동과 통합하여 배우는 것이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항목 24에서는 두 그룹 모두(교사 94.1%, 학생 65.4%) 문법을 듣기나 읽기 등의 다른 활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문법을 배우는 것이 유용하다는 데에 동의를 하였다. 하지만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과 교사간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이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항목24:  $\chi^2=11.830$ ,  $df=2$ ,  $p=.003$ ). 이는 교사들이 다른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문법을 그때그때 배우는 방법의 유용성을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항목 25에서는 문법을 듣기나 읽기 등의 다른 활동과 분리하여 배우면 나중에 그 문법을 의사소통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데에 64.7%의 교사들과 44.2%의 학생들이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과 교사간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이 항목 2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항목25:  $\chi^2=6.124$ ,  $df=2$ ,

p=.047). 이는 교사가 더 적극적으로 맥락 안에서의 문법학습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 문법 연습활동의 유형

다음 <표 12>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어떠한 문법 연습활동을 선호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항목들로 문법 연습 활동의 유형에 관한 두 집단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표 12> 문법 연습활동의 유형에 대한 인식비교

|      | 학생            |               |               | 교사            |             |               |
|------|---------------|---------------|---------------|---------------|-------------|---------------|
|      | 동의하지<br>않는다   | 잘<br>모르겠다     | 동의한다          | 동의하지<br>않는다   | 잘<br>모르겠다   | 동의한다          |
| 항목26 | 5<br>(4.8%)   | 20<br>(19.2%) | 79<br>(76.0%) | 3<br>(8.8%)   | 3<br>(8.8%) | 28<br>(82.4%) |
| 항목27 | 57<br>(54.8%) | 33<br>(31.7%) | 14<br>(13.5%) | 30<br>(88.2%) | 3<br>(8.8%) | 1<br>(2.9%)   |

항목 26: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반복해서 쓰거나 문장을 바꿔 쓰는 문법연습이 필요하다.

항목 27: 반복연습이나 문장 바꿔 쓰기 등의 연습은 유용하지 않으며, 문법연습은 항상 의사소통활동으로만 제시되어야 한다.

76.0%의 학생들과 82.4%의 교사들이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반복해서 쓰거나 문장을 바꿔 쓰는 문법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과 교사간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이 항목 26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항목26:  $\chi^2=2.513$ ,  $df=2$ ,  $p=.285$ ). 이는 학생과 교사집단 모두 반복해서 쓰거나 문장을 바꿔 쓰는 문법 연습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문형연습은 문법구조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학습자에게 연습시키기 위한 학습활동으로, 정확한 언어구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용한 학습활동이다.

반복연습이나 문장 바꿔 쓰기 등의 연습은 유용하지 않으며, 문법연습은 항상 의사소통활동으로만 제시되어야 한다는 문항 27에 대해서는 88.2%의 교사들과 54.8%의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교사들이 학생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생과 교사간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이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항목27:  $\chi^2=12.305$ ,  $df=2$ ,  $p=.002$ ). 이는 앞선 항목 26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교사들은 문법연습의 활동 유형에서 의사소통활동뿐만 아니라 반복연습이나 문장 바꿔 쓰기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 학습해야 할 문법 규칙의 유형

어떠한 문법 규칙을 배워야 하는지 두 집단의 문법규칙의 유형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학습해야 할 문법 규칙의 유형에 대한 인식비교

|      | 학생            |               |               | 교사            |               |               |
|------|---------------|---------------|---------------|---------------|---------------|---------------|
|      | 동의하지<br>않는다   | 잘<br>모르겠다     | 동의한다          | 동의하지<br>않는다   | 잘<br>모르겠다     | 동의한다          |
| 항목28 | 66<br>(63.5%) | 31<br>(29.8%) | 7<br>(6.7%)   | 27<br>(79.4%) | 2<br>(5.9%)   | 5<br>(14.7%)  |
| 항목29 | 16<br>(15.4%) | 24<br>(23.1%) | 64<br>(61.5%) | 8<br>(23.5%)  | 9<br>(26.5%)  | 17<br>(50.0%) |
| 항목30 | 51<br>(49.0%) | 42<br>(40.4%) | 11<br>(10.6%) | 21<br>(61.8%) | 9<br>(26.5%)  | 4<br>(11.8%)  |
| 항목31 | 26<br>(25.0%) | 45<br>(43.3%) | 33<br>(31.7%) | 20<br>(58.8%) | 10<br>(29.4%) | 4<br>(11.8%)  |
| 항목32 | 6<br>(5.8%)   | 23<br>(22.1%) | 75<br>(72.1%) | 4<br>(11.8%)  | 4<br>(11.8%)  | 26<br>(76.5%) |

항목 28: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워야 한다.

항목 29: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울 필요가 없으며, 간단한 규칙만을 배우면 된다.

항목 30: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울 필요가 없으며, 복잡한 규칙만을 배우면 된다.

항목 31: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울 필요가 없으며, 모국어와 다른 규칙만을 배우면 된다.

항목 32: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울 필요가 없으며, 의사소통에 필요하고 자주 쓰이는 규칙만을 배우면 된다.

모든 규칙을 다 배워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항목 28에 대해서 63.5%의 학생과 79.4%의 교사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굳이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울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두 집단 간에 지배적인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사들이 더욱 더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워야 한다는 데에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교사의 5.9%와 학생의 29.8%가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하여 두 집단 간 이 항목에 대해서 인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에 대해 학생과 교사간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이 항목 28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항목28:  $\chi^2=8.975$ ,  $df=2$ ,  $p=.011$ ). 이는 교사들은 전체적인 문법내용을 다 알고 있어,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문법 사항을 반드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러한 문법을 다 배울 필요성이 없다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학생들은 전반적인 문법에 대해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배워야 하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항목 29에서는 두 집단의 절반 이상(학생61.5%, 교사50%)의 응답자들이 문법 학습에 있어서 간단한 규칙만 배우면 된다고 인식하였고, 항목30에서는 복잡한 규칙만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과 교사간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항목 29와 30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항목29:  $\chi^2=1.682$ ,  $df=2$ ,  $p=.431$ ; 항목30:  $\chi^2=2.171$ ,  $df=2$ ,  $p=.338$ ).

항목 31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우선 58.8%의 교사들은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울 필요가 없으며, 모국어와 다른 규칙만을 배우면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들의 11.8%는 동의하였다. 반면에 학생의 25.0%가 동의하지 않았고, 그들의 31.7%는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과 교사간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이 항목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항목31:  $\chi^2=13.838$ ,  $df=2$ ,  $p=.001$ ). 절반이 넘는 교사들이 모국어와 다른 규칙만을 배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러한 규칙뿐만 아니라 모국어와 같은 규칙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소통에 필요하고 자주 쓰이는 규칙만을 배워야 한다는 항목 32에 대해서 72.1%의 학생과 78.5%의 교사가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과 교사간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실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항목32:

$x^2=2.741$ ,  $df=2$ ,  $p=.254$ ). 이는 의사소통을 위한 문법 규칙의 학습의 필요성을 두 집단은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정리하면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울 필요는 없고 간단한 규칙, 의사소통에 필요하고 자주 쓰이는 규칙만을 배우면 된다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당한 의사소통능력의 발달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최소한의 레벨의 문법적 능력을 제안(Politzer & McGroarty, 1983)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5. 현 문법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이 부분은 개방형 질문으로부터 얻어진 내용들로 영문법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그리고 학습자의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부족의 이유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서술한 내용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 가. 중등 영어문법 교육에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우리나라는 주로 문법 번역식 학습으로 영어문장을 우리말로 옮기고 문법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기 위한 측면이 가장 강하다. 정작 중요한 말하기와 쓰기를 위한 영문법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너무나 오랫동안 시험의 점수 따기 위한 영문법 교육이 되다보니 영문법은 수학교식처럼 가르치고 배우게 되었고 자연히 영문법 학습은 사용을 위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지식으로서 암기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문법번역식

수업의 영향을 받아 영어 문장을 영문법 규칙을 적용해서 지나치게 분석하는 경향을 낳았다.

영어문법 교육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과 학생들의 생각을 <표 1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4> 문법 교육의 문제점

| 주 제               | 교사들의 응답                                                                                                                                | 학생들의 응답                                                                                                                               |
|-------------------|----------------------------------------------------------------------------------------------------------------------------------------|---------------------------------------------------------------------------------------------------------------------------------------|
| 문법의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문법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문법은 배울 필요가 없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너무 어렵고 우리말과 거리가 약간 있다</li> <li>▶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li> <li>▶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된다</li> </ul>            |
| 문법학습의 비실용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배운 문법을 의사소통 활동에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법을 수업에서 배웠는데도 실제 생활에서 상황이와도 잘 사용하지 못한다</li> </ul>                                           |
| 시험위주의 주입식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로 쓰이는 어휘, 어법 등을 배워야 하지만 시험을 위한 문법을 배우는 경우가 많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너무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한다</li> <li>▶ 일방적인 주입식</li> </ul>                                              |
| 영문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법은 딱딱하다는 선입견</li> <li>▶ 문법이 필요없다는 식의 학생들의 인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문법을 외워야 한다는 것</li> </ul>                                                                  |
| 교사들의 수업방식에 따른 불만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용한 표현이나 예문의 제시 없이 수학기초처럼 가르치는 것. 문장이 각기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문장 바꿔 쓰기를 무분별하게 가르치는 것</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 혼자서 수업하는 느낌이 든다</li> <li>▶ 장황한 설명만 가득한 것,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규칙을 대충 설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li> </ul> |
| 학생들 간의 수준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간 수준 차가 극심하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법을 아는 학생들은 하는데 모르는 학생들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li> </ul>                                               |
| 영어문법시간의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법교육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중학교 교육과정 1학년-3시간, 2학년-3시간, 3학년-4시간으로 는 제대로 문법을 다룰 수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법수업을 조금 밖에 안하는 것 같다</li> <li>▶ 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진도로 나간다(시험범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li> </ul>       |

학생들과 교사들이 지적한 영어문법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은 거의 일치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영문법 교육에 있어서 주입, 암기위주의 교육, 문법 학습의 비실용성, 문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문법수업시간의 부족, 학생간의 문법 수준차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간단한 문법학습하기, 반복학습과 충분한 예문 제시하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수준별 학습하기, 학교시험의 중요성 낮추기, 외국인이나 미국 드라마, TV프로 등 실제 영어사용을 통한 필요한 문법 학습하기, 문법교육을 줄이고 회화교육 개설하기, 성적위주가 아닌 정말 필요한 영어를 가르치기 등을 언급하였다.

교사들은 흥미유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위주의 문법교재와 교수법 개발, 영어문법의 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지도, 너무 복잡한 문법보다는 필요한 문법들이 실제 의사소통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원어민을 통한 회화수업이나 진정성(authenticity)있는 학습자료 사용, 수업시수 늘리기, 주입식 암기식 지도를 지양하고 시험위주의 교육과정 자체의 변경 등을 제시했다.

#### 나. 학습자의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부족의 이유 및 해결방안

영어문법 학습에 대한 흥미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교사들과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은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문법 학습에 대한 흥미부족의 이유

| 주 제                   | 교사들의 응답                                                                                                                                        | 학생들의 응답                                                                                                                                                  |
|-----------------------|------------------------------------------------------------------------------------------------------------------------------------------------|----------------------------------------------------------------------------------------------------------------------------------------------------------|
| 문법 학습의<br>실용성 결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형설명에 치중하여 지루해질 수 있고, 실제로 쓰이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용적이지 못함</li> <li>▶ 문법 공부도 재미없지만 중요한 것은 문법이 토플/토익 시험에는 빠고 별 쓰일 때가 없다</li> </ul>                                 |
| 교사의<br>수업방식에 대한<br>불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참여기회가 낮고 일방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지루할 수 있고 모르는 문법이나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문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너무 딱딱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 같다</li> <li>▶ 선생님 혼자서만 하는 수업에 학생이 참여하지 않음. 학생 수가 너무 많음</li> <li>▶ 외워야만 하니까 흥미가 없다</li> </ul> |
| 문법 자체에 대한<br>부정적인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법=시험이기 때문이다</li> <li>▶ 학생들의 문법이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다는 선입감, 어려운 문법용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루하고 딱딱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li> </ul>                                                                                  |
| 문법의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생각에 문법은 어렵고 우리말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가 잘 안 된다</li> <li>▶ 무슨 말인지 몰라서</li> <li>▶ 외울 것이 많고 영어문법 용어가 헛갈려서</li> <li>▶ 어렵고 복잡해서</li> </ul>               |
| 학생들이 느끼는<br>정서적인 측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간 내에 고난도 수준까지 실력을 쌓아야하는 부담감 때문</li> <li>▶ 단순반복이나 암기에 대한 부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울 것이 나오면 지겹기 때문이다</li> <li>▶ 지겹고 귀찮고 재미가 없어서</li> </ul>                                                        |

이상과 같이 학생들과 교사들은 학습자의 문법 학습에 대한 흥미부족의 이유에 대해 비슷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습한 문법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법학습은 곧 시험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문법학습의 이해의 어려움, 그리고 문법수업 방식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단순반복이나 암기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학생들은 선생님이 의사소통에 필요한 간단하고 쉬운 문법을 영어능력이 평균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하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원어민을 활용하여 직접 의사소통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기를 원했으며, 팝송, 영화, 게임 등의 다양한 수업 자료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사들은 수업방식의 측면에서 먼저 문제를 풀기위한 문법학습에서 벗어나서 유의미한 맥락에서의 문법교육을 실시할 것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시키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 많이 연습시켜서 죽은 지식이 아니라 정확하고 유창한 영어 표현을 위한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표현 기회를 늘리고 스스로 작문을 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재선정과 관련하여 문법을 흥미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자료개발이 교과서 제작 시 고려될 것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개발·보급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의 영문법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문법학습에 대한 흥미 부

족의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점으로 제시한 것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영문법 수업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제시한 내용들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문법학 습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은 모두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법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흥미를 줄 수 있는 수업방식의 채택과 학생들의 수업에의 참여를 높여 의사소통상황에서 문법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경험해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이 바라는 이러한 문법 수업을 실행하게 된다면 그들의 문법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어 영어학습의 향상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있어 문법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그들의 인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교사들과 학생들의 문법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결과이다. 학생과 교사 모두 대부분이 영어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 능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학생과의 인식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에 비해 교사들은 더욱 더 의미중심교수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법학습에 대한 정의적 태도에 관한 것으로 목적과 흥미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의 결과이다. 두 집단 모두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유창성보다는 정확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한다는 데 있어서는 두 집단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 학생들은 교사들보다 더욱 더 강력하게 동의하였다. 영문법학습에 대한 흥미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는데, 두 집단 모두 학생들은 영어학습의 다른 영역에 비해 문법학습이 재미없고 문법에 대한 자신감도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법연습은 의사소통활동으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반복해서 쓰거나 문장을 바꿔 쓰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두 집단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명시적인 학습을 선호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명시적 학습뿐만 아니라 암시적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넷째, 문법규칙의 유형에서는 모든 문법규칙은 다 배울 필요가 없으며 간단한 규칙만을 배우면 되고, 의사소통에 필요하고 자주 쓰이는 규칙만을 배우면 된다고 두 집단 모두 동의하였다.

## 2. 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현장에서 문법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 학습에 있어서 문법교육이 지닌 긍정적 역할과 적극적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입식, 일방적인 문법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영문법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문법능력을 의사소통 능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법교육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교사들과 학생들의 영문법 수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라는 교육목표 성취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법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구조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문법적 이해를 하게끔 도와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마다 영문법에 대한 태도, 영문법을 배우는

방식, 속도, 필요성, 목적 등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학습자 중심의 문법지도를 통해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법지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법은 목적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유용한 도구라는 인식이다. 앞서 제시한 문법능력을 의사소통 능력에 활용할 수 있는 문법교육 개발과 그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문법지도가 이루어진다면 문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양순, 박연미, 서진희, 최숙희, 홍성심 옮김. (2000). *영어 전문가를 위한 문법*. 서울: 동인.
- 김은일, 박기성, 채영희 옮김. (2003). *기능영문법 I*. 서울: 박이정.
- 김인옥. (1998). *언어학습에 대한 한국과 미국학생의 정의적 요인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박상옥. (2004). *한국인을 위한 영어학습지도*. 서울: 신아사.
- 신길호. (2004). *영어교육연구*. 서울: (주)도서출판 북스힐.
- 이윤주. (2007). *영문법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및 선호하는 교수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이환묵. (2002). *영어전통문법론(대우학술총서 453논저)*. 서울: 도서출판아르케.
- 장철기. (2006). *고등학교 영문법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New York: Longman.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Celce-Murcia, M. (1991). Grammar pedagogy in second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TESOL Quarterly*, 25, 459-480.
- Cho, Y. (2008). *Study on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grammar instruction*. Unpublished manuscrip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 Doughty, C., & Williams, J. (1998). Pedagogical choices in focus on form. In C. Doughty & J. Williams (Eds.),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197-26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Pride & J. Holmes (Ed.), *Sociolinguistics*. Harmondsworth, UK: Penguin.
- Lee, J., & Valdman, A. (2000). *Form and meaning: Multiple perspectives*. Boston: Heinle & Heinle..
- Politzer, R. L., & McGroarty, M. (1983). A discrete point tes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1, 180-190.
- Schulz, R. (2001). Cultural differences in student and teacher perceptions concerning the role of the grammar instruction and corrective feedback: USA-Colombia.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5, 244-258.

## 부 록 1

### 영문법 교수 · 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학교: \_\_\_\_\_ 이름: \_\_\_\_\_

교육경력: \_\_\_\_\_년 성별: 남 녀

|                                                                    | 아주<br>동의<br>하지<br>않는<br>다 | 동의<br>하지<br>않는<br>다 | 잘<br>모르<br>겠다 | 동의<br>한다 | 아주<br>동의<br>한다 |
|--------------------------------------------------------------------|---------------------------|---------------------|---------------|----------|----------------|
| (1) <u>듣기</u> 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영어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                        |                           |                     |               |          |                |
| (2) <u>말하기</u> 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영어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                       |                           |                     |               |          |                |
| (3) <u>읽기</u> 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영어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                        |                           |                     |               |          |                |
| (4) <u>쓰기</u> 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영어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                        |                           |                     |               |          |                |
| (5)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u>문법</u> 규칙은 습득될 수 있다. |                           |                     |               |          |                |
| (6)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u>듣기</u> 능력은 향상된다.     |                           |                     |               |          |                |
| (7)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u>말하기</u> 능력은 향상된다.    |                           |                     |               |          |                |
| (8)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u>읽기</u> 능력은 향상된다.     |                           |                     |               |          |                |
| (9)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u>쓰기</u> 능력은 향상된다.     |                           |                     |               |          |                |
| (10)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u>듣기</u> 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움이 된다.   |                           |                     |               |          |                |
| (11)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u>말하기</u> 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움이 된다.  |                           |                     |               |          |                |
| (12)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u>읽기</u> 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움이 된다.   |                           |                     |               |          |                |
| (13)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u>쓰기</u> 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움이 된다.   |                           |                     |               |          |                |

|                                                                                | 아주<br>동의<br>하지<br>않는<br>다 | 동의<br>하지<br>않는<br>다 | 잘<br>모르<br>겠다 | 동의<br>한다 | 아주<br>동의<br>한다 |
|--------------------------------------------------------------------------------|---------------------------|---------------------|---------------|----------|----------------|
| (14) 현재와 비교하여 학교수업에서 문법 교육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                           |                     |               |          |                |
| (15) 영어교과에서 문법 교육의 비중이 낮아짐으로써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능력이 저하되었다.                          |                           |                     |               |          |                |
| (16)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어를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해서이다.                                         |                           |                     |               |          |                |
| (17)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서이다.                                         |                           |                     |               |          |                |
| (18)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이다.                                  |                           |                     |               |          |                |
| (19)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이다.                              |                           |                     |               |          |                |
| (20) 문법용어를 사용하여 배우는 것이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                           |                     |               |          |                |
| (21) 새로운 문법규칙이 나올 때, 문법규칙에 대한 선생님의 명확한 설명 없이 예문을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                           |                     |               |          |                |
| (22) 새로운 문법규칙이 나올 때 선생님은 문법 규칙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                           |                     |               |          |                |
| (23) 문법은 듣기나 읽기 등의 다른 활동과 분리하여 배우는 것이 유용하다.                                    |                           |                     |               |          |                |
| (24) 문법은 듣기나 읽기 등의 다른 활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문법을 배우는 것이 유용하다.                        |                           |                     |               |          |                |
| (25) 문법을 듣기나 읽기 등의 다른 활동과 분리하여 배우면, 나중에 그 문법을 의사소통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               |                           |                     |               |          |                |
| (26)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반복해서 쓰거나 문장을 바꿔 쓰는 문법연습이 필요하다.                                |                           |                     |               |          |                |
| (27) 반복연습이나 문장 바꿔 쓰기 등의 연습은 유용하지 않으며, 문법연습은 항상 의사소통활동으로만 제시되어야 한다.             |                           |                     |               |          |                |
| (28)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워야 한다.                                                        |                           |                     |               |          |                |

|                                                            | 아주<br>동의<br>하지<br>않는<br>다 | 동의<br>하지<br>않는<br>다 | 잘<br>모르<br>겠다 | 동의<br>한다 | 아주<br>동의<br>한다 |
|------------------------------------------------------------|---------------------------|---------------------|---------------|----------|----------------|
| (29)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울 필요가 없으며, 간단한 규칙만을 배우면 된다.               |                           |                     |               |          |                |
| (30)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울 필요가 없으며, 복잡한 규칙만을 배우면 된다.               |                           |                     |               |          |                |
| (31)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울 필요가 없으며, 모국어와 다른 규칙만을 배우면 된다.           |                           |                     |               |          |                |
| (32)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울 필요가 없으며, 의사소통에 필요하고 자주 쓰이는 규칙만을 배우면 된다. |                           |                     |               |          |                |
| (33) 학생들은 영어학습의 다른 영역(읽기, 듣기, 회화 등)에 비해 문법 배우는 것을 재미있어 한다. |                           |                     |               |          |                |
| (34) 학생들은 영어학습의 다른 영역(읽기, 듣기, 회화 등)에 비해 문법이 쉽다고 생각한다.      |                           |                     |               |          |                |
| (35) 학생들은 영어학습의 다른 영역(읽기, 듣기, 회화 등)에 비해 문법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                           |                     |               |          |                |
| (36) 학생들은 문법에 대해 잘 알고 싶어한다.                                |                           |                     |               |          |                |

다음 질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37) 중등 영어문법 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8) 위의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9) 중등 영어문법 지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40) 위의 언급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41) 학생들이 영어문법 학습에 흥미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42) 학생들의 영어문법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영문법 교수 ·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번호: \_\_\_\_\_ 이름: \_\_\_\_\_ (성별: 남 녀)

|                                                                    | 아주<br>동의<br>하지<br>않는<br>다 | 동의<br>하지<br>않는<br>다 | 잘<br>모르<br>겠다 | 동의<br>한다 | 아주<br>동의<br>한다 |
|--------------------------------------------------------------------|---------------------------|---------------------|---------------|----------|----------------|
| (1) <u>듣기</u> 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영어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                        |                           |                     |               |          |                |
| (2) <u>말하기</u> 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영어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                       |                           |                     |               |          |                |
| (3) <u>읽기</u> 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영어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                        |                           |                     |               |          |                |
| (4) <u>쓰기</u> 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영어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                        |                           |                     |               |          |                |
| (5)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u>문법규칙</u> 은 습득될 수 있다. |                           |                     |               |          |                |
| (6)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u>듣기</u> 능력은 향상된다.     |                           |                     |               |          |                |
| (7)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u>말하기</u> 능력은 향상된다.    |                           |                     |               |          |                |
| (8)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u>읽기</u> 능력은 향상된다.     |                           |                     |               |          |                |
| (9)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더라도 책이나 TV를 통해 영어를 접하게 되면 <u>쓰기</u> 능력은 향상된다.     |                           |                     |               |          |                |
| (10)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u>듣기</u> 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움이 된다.   |                           |                     |               |          |                |
| (11)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u>말하기</u> 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움이 된다.  |                           |                     |               |          |                |
| (12)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u>읽기</u> 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움이 된다.   |                           |                     |               |          |                |
| (13)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u>쓰기</u> 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움이 된다.   |                           |                     |               |          |                |

|                                                                                | 아주<br>동의<br>하지<br>않는<br>다 | 동의<br>하지<br>않는<br>다 | 잘<br>모르<br>겠다 | 동의<br>한다 | 아주<br>동의<br>한다 |
|--------------------------------------------------------------------------------|---------------------------|---------------------|---------------|----------|----------------|
| (14) 현재와 비교하여 학교수업에서 문법 교육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                           |                     |               |          |                |
| (15) 영어교과에서 문법 교육의 비중이 낮아짐으로써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능력이 저하되었다.                          |                           |                     |               |          |                |
| (16)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어를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해서이다.                                         |                           |                     |               |          |                |
| (17)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서이다.                                         |                           |                     |               |          |                |
| (18)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이다.                                  |                           |                     |               |          |                |
| (19)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이다.                              |                           |                     |               |          |                |
| (20) 문법용어를 사용하여 배우는 것이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                           |                     |               |          |                |
| (21) 새로운 문법규칙이 나올 때, 문법규칙에 대한 선생님의 명확한 설명 없이 예문을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                           |                     |               |          |                |
| (22) 새로운 문법규칙이 나올 때 선생님은 문법 규칙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                           |                     |               |          |                |
| (23) 문법은 듣기나 읽기 등의 다른 활동과 분리하여 배우는 것이 유용하다.                                    |                           |                     |               |          |                |
| (24) 문법은 듣기나 읽기 등의 다른 활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문법을 배우는 것이 유용하다.                        |                           |                     |               |          |                |
| (25) 문법을 듣기나 읽기 등의 다른 활동과 분리하여 배우면, 나중에 그 문법을 의사소통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               |                           |                     |               |          |                |
| (26)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반복해서 쓰거나 문장을 바꿔 쓰는 문법연습이 필요하다.                                |                           |                     |               |          |                |
| (27) 반복연습이나 문장 바꿔 쓰기 등의 연습은 유용하지 않으며, 문법연습은 항상 의사소통활동으로만 제시되어야 한다.             |                           |                     |               |          |                |
| (28)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워야 한다.                                                        |                           |                     |               |          |                |

|                                                            | 아주<br>동의<br>하지<br>않는<br>다 | 동의<br>하지<br>않는<br>다 | 잘<br>모르<br>겠다 | 동의<br>한다 | 아주<br>동의<br>한다 |
|------------------------------------------------------------|---------------------------|---------------------|---------------|----------|----------------|
| (29)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울 필요가 없으며, 간단한 규칙만을 배우면 된다.               |                           |                     |               |          |                |
| (30)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울 필요가 없으며, 복잡한 규칙만을 배우면 된다.               |                           |                     |               |          |                |
| (31)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울 필요가 없으며, 모국어와 다른 규칙만을 배우면 된다.           |                           |                     |               |          |                |
| (32) 모든 문법규칙을 다 배울 필요가 없으며, 의사소통에 필요하고 자주 쓰이는 규칙만을 배우면 된다. |                           |                     |               |          |                |
| (33) 영어학습의 다른 영역(읽기, 듣기, 회화 등)에 비해 나는 문법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      |                           |                     |               |          |                |
| (34) 영어학습의 다른 영역(읽기, 듣기, 회화 등)에 비해 나는 문법이 쉽다.              |                           |                     |               |          |                |
| (35) 영어학습의 다른 영역(읽기, 듣기, 회화 등)에 비해 문법이 자신있다.               |                           |                     |               |          |                |
| (36) 나는 문법에 대해 잘 알고 싶다.                                    |                           |                     |               |          |                |

다음 질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37) 영어문법 수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8) 위의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9) 영어문법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40) 위의 언급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41) 학생들이 영어문법 학습에 흥미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42) 학생들의 영어문법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